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10월 18일 연중 제29주일 (전교주일) 얼마 전 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서명이 들어간 ‘250달러짜리 지폐’ 시안을 만들라고 조폐국에 지시했다는 뉴스를 보고 헛웃음 친 적이 있다. 1866년 이후 살아있는 사람 얼굴은 지폐에 못 넣는다는 160년 넘은 미국 연방법도 무시하고, 우려를 표한 조폐국장을 좌천까지 시키면서 추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종이 돈 한 장에 자기 얼굴을 박아서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인간의 그 지독한 자기애와 세속적 욕망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2천 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은화 데나리온에 자기 얼굴과 함께 이런 글귀를 새겨 넣었다. “지존한 신의 지존한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이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로마의 막강한 권력과 우상 숭배의 결정체였다. 하느님 외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던 유대인들에게 이 동전은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 혐오 물품이기도 했다.					
3주전에는 포도밭에 일하러 간다고 하고 안한 아들이 옳으나 아니면 안 간다고 하고서 가서 일한 아들이 옳으나 는 질문으로 하느님의 일을 말로만 하는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더니, 너희들 보다 직업상 죄인인 세리들과 윤리적 죄인인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는 포도밭의 소작인들을 비유하시면서 도조를 내는 소작인과 도조를 안 내고 상속자를 죽여 오히려 포도밭을 차지하려는 그들의 욕심을 지적하시며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으로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셨다. 또한 지난 주 복음에서는 잔치를 벌려 놓고 모두 초대했음에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다른 짓을 일삼는 그들을 빗대어 호통 치셨으며 어쩌다 잔치에 초대를 응했음에도 예복을 입지 않아 또 쫓겨나는 모욕을 당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 그들을 욕하셨으니 이제 그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 싶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라가미를 씌울까 의논하고” 예수님을 옳아 말 충분한 질문거리 하나를 만들어 왔다. 사람을 물기 전에 꼬리치는 강아지 마냥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더니 “스승님, 황제에게 주민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외통수 질문이다. 바치라고 하면 로마에 아부하는 민족 배반자가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긴 국사범 고발을 당할 판이었다.					
그분은 한 판의 통쾌한 반전으로 그들의 속물근성을 뒤집어 놓으신다. “세금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하시고는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물으신다. “황제의 것입니다.” 하자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의 진정한 묘미를 이해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라는 식의 적당한 타협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 황제의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느님의 형상(Imago Dei)이 새겨져 있으니 동전 몇 푼은 황제에게 줄지 언정,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자신 곧 우리 마음과 정신과 삶 전체는 온전히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선언이다.					
예수님은 복잡한 율법 조항이나 계산기 두드리는 똑똑함으로 세상을 상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움직인 것은 오직 하느님을 향한 뿔어져 나오는 열정(Passion)이었다. 그분의 열정은 언제나 소외되고 그늘진 곳으로 향했다. 당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못 지킨다고 세리, 창녀, 병자들을 죄인이라 하며 밖으로 내던졌지만, 예수님은 율법과 제사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던 그들에게 다가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이 열정 때문이었다. 영어로 고난을 뜻하는 ‘Passion’이 열정을 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시는 데 당신 목숨을 다할 만큼 '열정적'이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인가? 혹시 지폐 위에 자기 얼굴을 넣으려고 애쓰던 세상 권력자들처럼, 내 이름, 내 체면, 내 통장 잔고라는 세상의 형상을 매만지며 골머리를 앓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하느님의 형상으로 찍혀 나온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 기꺼이 돌려드려야 한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결의 소외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 그것이야 말로 2천 년 전 데나리온의 뒷을 단칼에 깨부수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열정에 응답하는 길이다.					
비록 우리 결은 아니지만,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려는 선교 바자회는 그래서 복음 선포의 훌륭한 장이다. 우리가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우리의 하느님의 마음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선교 바자회를 위해 몇 주 전부터 마음고생과 열정으로 일해 주신 선교부, 모니카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가서 복음을 선포합시다!”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봉헌	보편지향기도
26년 10/18	이신애(율리야나)	김주영(이냐시오)	백진주(에말리아나)	박춘자(아가다)
	김경숙(클로틸다)	표민규(아킬레오)	표혜진(레지나)	박정환(라파엘) 박현주(크리스티나)
26년 10/25	소은주(크리스티나)	김양균(아네스)	김미선(안젤라)	김화룡(수산나)
	정형식(저스틴)	이향례(자넷)	임기홍(스테파노)	김소원(사라)

공동체 소식



◎ 십자가의 신비가인 성 바오로의 영명일을 맞으신 김두진 (바오로) 신부님! 본당 공동체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 가득히 축하드리며 기도합니다. 9 시미사 후 친교실에서 축하케익 나눔에 모두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선교바자회 (아프리카 돕기)안내
오늘 아프리카 마다카스카라 아이호시 (Ihosy)지역 돕기를 위한 선교바자회가 9 시, 11 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식사 나눔과 함께 본당 자매들께서 준비한 여러가지 세일제품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에 동참을 바랍니다. 선교를 위한 후원금은 10 월 31 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 봉성체 안내
▶일시: 10 월 23 일(금) 환자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이나 수녀님께 신청하십시오.

◎반모임일정 안내
▶8 구역 1 반: 10 월 27 일(화) 오후 6 시 허강백 형제댁 1297 BIRCHBARK TR, CAROL STREAM, IL 60188

◎11 월 위령성월, 본당 9 일기도(Novina)
▶일시:11 월 2 일(월) ~11 월 10 일(화) 오후 7 시 30 분 위령미사 신청은 사무실로 하십시오.

◎성경 필사
성탄 맞이 성경 필사를 합니다. 신, 구약 성경 중 읽고, 쓰며, 묵상하고 싶은 말씀 한권을 선택, 필사해서 12 월 13 일까지 제출하시면 본당 사랑의 구유를 준비하게 됩니다.

◎2027 년 부활세례반 예비자 모집 안내 - 10 월까지
▶성인 교리시간: 주일 오전 9 시 30 분
▶청년 교리시간: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 Generation to Generation Campaign
G to G는 계속됩니다. 약정에 참여해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며, 본당에 납부하실 분은 교구청의 납부 안내서의 Donor ID#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아직 약정하지 않으신 교우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임장섭(윌리엄), 정찬일(안토니오), 최희복(요한), 이태식(요한), 조현정(에스터), 지석철(스테파노), 고경인(요한), 권상웅(요한), 모기화(카타리나), 임장하(데레사), 김인선(아네스), 이지훈(베드로), 송경의(마르코)

○교무금 \$ 2,100.00 ○주일헌금 \$ 1,632.00
○토요, 영어미사 \$ 300.00

『 2026년 10월 18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유명주(마가렛), 황명훈, 황영희가정, 고연(요한), 김정자(엘리사벳)가정, 앤디킴(안드레아), 엄광식(토마스), 안종대(스테파노), 최순민, 모성훈(분도), 모성민(이냐시오), 이의석(대건안드레아)

■ 연미사
이옥수(다두), 이궁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폴라따),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백승재(야고보),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조문기(샤스팡야고보), 주영선(소피아), 이동준(베드로), 김성애(마리안나), 베니지(베네딕토),김옥련(사라), 김충남(도비아), 허준(요셉), 허순덕(마리아), 허순이(마멜다), 김종덕(베드로), 이선애(마틸다), 이덕용(마리아), 코로나로 돌아가신분들.

10월 20일(화)
최경애(데레사), 소니아킴(Sonia Kim) (생미사)

김선경(임마폴라따),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승재(야고보), 백용길(그레고리오), 주영선(소피아), 김성애(마리안나) (연미사)

10월 21일(수) ~ 10월 24일(토)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연미사)
10월 21일(수): 허순이(마멜다) (연미사)
10월 23일(금): 이지호(스텔라) 허순덕(마리아) (생미사) (연미사)